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 되기'입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를 버려야 합니다. 나를 아낌없이 던져 버리고 희생적인 정신을 가지고 움직여 보십시오. 자신을 던져 버릴 때 비로소 기쁨의 신(神)인 하나님이 내가 되어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며 기쁨을 추구합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는 '행복'이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면 병이 들게 되어 있고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면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기 때문에 사람은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의 기준을 남녀의 만남에 두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살펴볼 때, 남녀간의 사랑에 행복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행복의 부재는 잘못된 가치기준에서 비롯해

그러나 남녀 간의 사랑은 잘나적인 행복을 줄 뿐 아픈 상처와 괴로움만 남기고 사라져 갑니다. 그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 욕망의 이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으로는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로 물질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하여 물질을 쌓아 놓은 곳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돈을 벌며 보지만 그곳에는 역시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권력을 쥐면 행복을 누릴까 하여 권력을 잡아 보았지만 역시 거기에도 행복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인류는 왜 이러한

실패를 거듭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가치기준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잘못된 인생철학을 가지고 있는 까닭입니다. 이 세상에 훌륭한 철학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 온전한 철학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단 한 사람이라도 온전한 철학을 내세웠더라면 세상은 달라지게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온전한 세상으로 바뀌게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철학이란 생의 목적과 이념을 어떻게 설정하였는가를 말하는데 오늘날까지 생의 목적과 이념을 올바르게 설정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철학이 등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왜 생의 목적과 이념이 잘못 설정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모든 인생들의 주체 영이 바로 마귀 영이었기 때문이며 인생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귀 영은 마귀의 생각 밖에 못하므로 '나라고 하는 주체 영'이 주는 욕망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는 욕망'의 틀을 벗어날 수 없었으므로 한계가 있는 철학을 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주체영이 마귀영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주체 영'으로 말미암아 불행이 오고, 고통이 오고, 피가 썩고, 늙음과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나는 '나라고 하는 의식'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으며 그러므로 한계가 그려져 있는 좁다란 철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사람의 주체 영은 하나님의 영이었으며 그때는 인간(하나님)은 에덴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불행이란 찾아보려야 찾을 수 없고 기쁨과 희열과 영생만이 존재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사실인 것은 사람들 속에 그 증거가 남아 있음으로 확인할 수가 있



구세주 조희성님

습니다.

나를 버릴 때 놀라운 은혜체험을 하게 되어 있어

양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이 양심이 주체 영이었고 이 양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야말로 생명의 영이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영입니다. 지금도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되는 양심의 힘으로 생명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식인이라 자처하는 과학자들에게 '사람이 왜 사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근본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다만 살고 있는 것뿐이다.' 하는 것이 그들의

대답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학문 또한 학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진리추구가 그 목적이며 진리는 변하지 않는 생명 속에 존재하는 것인데 사람이 왜 사는지 모르고 왜 죽는지와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을 모르니 학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참 학문이 나와야 사람이 왜 살며, 왜 죽으며, 사람이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또 무엇인가 하는 것을 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무엇 때문에 사느냐 하는 질문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에 대하여 '인간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산다.'

인간의 본향이 되는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기 위해서 산다' 고 말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의 주체 영이었던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영이므로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마귀의 영과 싸워서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목적이요 이념입니다.

우리의 조상 되시는 하나님이 그 자식이 갖은 고생 끝에 결국은 죽고 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영원무궁토록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원무궁토록 살려면,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으면 영원무궁토록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괴롭이 있다든지 하면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하려면 그 마음속에 그늘이 없어야 합니다. 그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쳐야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잠시만 기쁘고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린다면 영생은 불가능합니다.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바로 영생이요, 영생이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 신은 기쁨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알게 될 때 말할 수 없이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그것이 양심의 기쁨이며 양심의 기쁨은 변치 않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기쁨은 잠시 후에는 식어 버립니다. 나라의 영이 욕심을 충족시킬 때에는 잠시 잠깐의 쾌락이 있는지는 몰라도 다음 순간 더 큰 욕망 앞에 그 기쁨은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라는 주체 영'이 작용할 때 하나님의 신은 떠나고 마는 것입

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난 자는 말할 수 없이 우울하고 몸이 무겁고 말할 수 없이 마음에 괴로움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나를 버려야 한다

여러분들,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를 버려야 합니다. 나라라는 것을 아낌없이 던져 버리고 희생적인 정신을 가지고 움직여 보십시오. 나를 던져버릴 때 비로소 기쁨의 신인 하나님이 내가 되어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없애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신이 점령하시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만 넘치니 이 사람을 봐도 즐겁고 저 사람을 봐도 즐겁고 저 사람을 봐도 천사 같고 이 사람을 봐도 꽃과 같이 아름답고 예쁘고 귀엽고.

그러므로 내 마음이 천사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상대방도 천사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으로 비치지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마귀의 마음 즉 야상(我相)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리 상대방을 하나님처럼 보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마귀 새끼는 누구 봐도 도둑놈처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봐도 도둑놈, 저 사람을 봐도 도둑놈처럼 보이는 것은 자기가 도둑놈이고 자기가 바로 사기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마귀인고로 누구든지 마귀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누구를 보든지 귀한 존재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말 한마디를 해도 조심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귀한 존재이므로 누구든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재]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피의 변화

신앙과 수도는 누구를 믿고 열심히 교회나 절에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사이버 신앙인과 수도인의 행태는 서로 반복질시하고 내 종교 내 종교가 옳다고 하며, 수심(修心)과 수신(修身)에는 관심없고 허례허식만 번드르르하다. 이런 잘못된 생각과 삶을 살게 하는 실재적인 그 주체인 거짓된 나, 옛사람을 버리는 지난한 노력과 행위가 참 신앙이자 수도이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거나 거룩해 보이려는 것이 아닌, 자신의 양심에 비취 참되고 올바른, 사 략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무섭도록 자신을 채찍질하여 갈고 닦는 진짜 인간 개조의 교육훈련을 의미한다. 이는 말과 입술로만 외쳐대는 것이 아닌 내면 깊이 잠들어 있는 양심의 깨임과 과단성 있는 실천을 이끌어 내기 위한 촉매제가 바로, 신앙이자 수도인 것이다.

옛사람, 거짓된 나의 말로

대개의 사람은 누구나 욕망에 따라 살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산다. 보통 사람이 사는 방식대로 세상을 살고 인생을 살면 반드시 불행해진다. 왜 그럴까?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하는 주체가 바로 비양심적이고 비생명적인 거짓된 나(我)이며, 그가 주장하는 대로 이끌려 살기 때문이다. 비양심적으로 살면 순간순간 자

신을 속여 거짓말을 하게 되고, 자기 편한 대로 살게 된다. 그렇게 하면 당장에는 마음이 편하고 생활이 만족스러울지 모르나, 이것은 마치 강물에 나 하나 편하자고 쓰레기 오물을 남모르게 버리는 행위와도 같다. 소수가 그럴 때는 표가 안 난다. 그러나 점점 그 수가 많아지면 그 물을 마시는 모두는 점점 병 들고, 자신도 빨리 죽게 된다.

현재 우리는 지구라는 생명의 강물에 저마다 마음의 쓰레기와 비양심의 오물을 마구 버리고 사는 실정이다.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정도와 그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게 더 심각하다. 환경오염 미세먼지 이상기후 살인 폭력 갑질 사기 고질불통 독단 등 사회 곳곳에 무수한 거짓된 마음과 흉포한 죄악의 쓰레기와 오물로 지금 지구촌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볼 듯 환하다. 생명의 강물이 독극물로 완전히 변하기까지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신빙성 있는 어느 예언서에 의하면, 이대로 가다간 지구촌 인류의 3 분지 2가 멸망하는 날이 현실로 다가 올지도 모른다고 한다.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수시로 인류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아는 자, 하늘의 준엄한 소리를 듣는 자는 누

진정한 신앙, 수도(修道)란 무엇인가



인류는 한 뿌리에서 갈라온 가지와 같다

가 먼저랄 것도 없고 지체할 틈도 없이 고쳐 나가지 않으면 지구 대재앙의 위기가 눈앞의 현실로 닥쳐올 수도 있다. 핵, 환경오염, 이상기후, 전쟁, 괴질로 공멸하느냐, 아니면 평화와 번영의 지상천국이 되느냐 하는 중요한 길목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엔 선한 하늘의 사람, 신앙인, 수도인들이 많아

다가올 인류의 미래를 내다보는 선지자와 선각자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그 시(時)와 되어질 일들을 목격했 외치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중심주의와 집단이기주의 한탕주의 황금만능주의를 숭상하고 찬양한다면 다가올 미래가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나 하

나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극도의 이기주의를 계속 가지고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인류가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득한 이타주의의 마음을 가지고 더불어 잘 살 것이냐가 향후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다. 전자의 마음을 고수하는 자가 옛사람이자 거짓되고 가증한 멸망받을 원수가 사는 방식이 되고, 후자가 새사람이자 참 나가 살아가는 신인류(하나님 부처님)가 지향하고 사는 방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참 나'가 시키는 대로 살기란 무척 힘이 들 수밖에 없다. 많은 무리가 가면 쉬운데 한두 사람이 가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직까진 희망이 있다. 우리 대한민국엔 선한 하늘의 사람, 신앙인, 수도인들이 많

기 때문이다.

옛사람 거짓된 가아(假我)를 완전히 버려라

거짓된 나를 잊기 위해 술을 먹거나 마약, LSD 등 환각제를 복용하면 마음이 아찔해지고 극도의 쾌락에 빠져들게 된다. 이는 나라의 괴롭고 고통의 의식이 일시적으로 타력에 의해 잊혀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으로써 나를 잊는 것은 강도를 막기 위해 불랑조직 폭력배를 동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와 수도장에서 거짓된 나를 버리는 수행법과 연단법, 주문 수도 등이 나왔지만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은 불완전하였기 때문이다. 나를 제거하는 완전한 수행법은 특별히 나라라는 것을 의식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근본 이유를 철저히 깨달으면 된다. 사람에게 오는 긴장과 불편함은 나와 남을 구분 분별하는 의식이 작용하는 데서 비롯된다. 누구든지 내 몸이 본래 모든 인류가 한 조상의 자손이자 형제임을 분명하게 인지한다면 나와 남이 자연스레 하나라는 일체 사상을 갖게 된다.

아프리카 흑인이나 미국의 백인이나 동양의 황인종이 본래가 한 조상의 자손이고 우리의 형제자매임을 뺏속 깊

이 깨닫고 친구처럼 형제처럼 가족처럼 대하면 인종 국경 종교 대립적 사상이 다 소용없게 될 것이다.

추후라도 옛사람이자 거짓된 나(가아)가 주는 분리된 마음, 특별의식과 우월의식이 억만 분의 일조차도 내 양심에 침투해 들어올 수 없도록 차단하는 주문이나 기도를 늘 해야 한다. 단 하나의 욕심과 이기주의의 마음에서부터 양심의 성은 무너져 죄악으로 분탕질당하게 된다. 부지불식간에라도 내 마음과 생각이 거짓된 나(비양심)의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으면 순간순간 그 가아(비양심)의 흐름을 즉시 포착하여 초전에 박멸소탕(撲滅掃蕩)할 수 있다. 그리하면 만사가 복과 행운으로 화답할 것이다. 마음 천국을 지키기 위한 견고한 성을 철물같은 경계태세로 화(禍)와 재앙의 근원이 되는 욕심과 이기주의가 바늘구멍만한 틈으로도 비집고 들어올 수 없도록 방비해야 한다. 그러려면 매사에 이타적 양심(하나님 부처님)을 가지고 희생과 봉사로서 일구월심(日久月深) 지속하면 평안하고 행복한 천국(극락)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 누구나 소망하는 행복(천국 극락)을 누리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신앙)와 수도, 학문)가 이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이것은 완성된 철학 과학 도덕 그리고 종교와 이념을 하나로 통일할 최고의 가치관이자 완성된 윤법이 될 것이다.*

김주호 기자